

팩션(Faction)

- 역사적 사실의 문학적 변용 허용범위에 대하여

이 름 : 차*은
학 과 : 인문학부
학 번 : 6016****
과 목 : 고전으로 읽는 인문학
교 수 님 : 육민수 교수님
제 출 일 : 2016년 10월 24일

목 차

- I. 서론
- II. 문화적 변용 기준
- III. 실제 사례
 - 1. 영화 ‘명량’
 - 2. 드라마 ‘명성황후’
- IV. 결론

I. 서론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소설, 드라마, 영화는 예전부터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팩션’¹⁾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면서 대중들은 역사적 사실과 오락적 재미가 결합된 팩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역사 드라마의 방영 빈도가 1990년대에 비해 증가하였고, 그 시청률 역시 전체 드라마 평균 시청률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²⁾ 이것은 대중들에게 역사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역사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팩션이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대중들의 역사인식 왜곡을 형성한다는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역사에 충실해야 하는지 혹은 그들의 문학적 변용을 인정해야하는지의 논쟁은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왔다. 김동인은 “역사 소설가는 사화의 기록자가 아니라 사실을 재생하는 사람이므로 사실의 제막 속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으며 현진건은 역사소설은 “과거에 소재와 무대를 가진 소설”로 규정하고 역사와 소설의 관계는 “사실을 위한 소설이 아니라 소설을 위한 사실”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김성동은 “역사소설의 성패는 아주 구체적인 생활사와 풍속사의 방불한 복원에 달려 있다”며 진실에 육박하도록 쓸 것을 요구했으며, 정창범은 “역사소설은 이름 그대로 역사 그 자체에 발판을 두어야 할 것이지, 현대를 우의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편 또는 무대로 역사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역사소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³⁾

이와 같은 논쟁은 ‘팩션’이라는 장르 탄생과 함께 역사적 사실의 문학적 변용이 더욱 많아지면서 현재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필자는 팩션의 정의과 역사적 사실의 범위를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 역사적 사실의 문화적 변용의 허용여부와 허용범위에 대해 논함과 동시에, 실제 팩션 작품에서 드러난 역사적 사실의 문학적 변용사례에 이를 적용해보고자 한다.

1) ‘팩션(faction)’은 팩트(fact)와 픽션(fic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새로운 시나리오를 재창조하는 문화예술 장르이다. 처음에는 소설의 한 장르를 의미하였지만 현재는 그 의미가 영화, 드라마, 연극, 게임, 만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2) 이은애, 「역사드라마의 ‘징후적 독해’: 거대담론과 작은 이야기의 공존 가능성으로서의 역사 드라마」, 『한국문예비평연구』제 30집(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9), pp.227~228.

3) 권덕영, 「역사와 역사소설 그리고 사극 - 장보고와 ‘해신’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60(한국역사연구회, 2006), pp.144~147.

II. 문화적 변용의 기준

팩션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재창조하는 장르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팩션은 단지 역사적 사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재창조하는 장르라는 것이다. 루카치는 『역사소설론』에서 과거의 소재적 사실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힘이 되는 상상력을 역사의 문학적 형상화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⁴⁾ 또한 김기봉은 사극을 ‘꿈꾸는 역사’라고 하며 현실의 부재와 결핍을 보상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⁵⁾ 사실상 역사소설이 역사적 충실성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역사소설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용은 허용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설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모든 팩션 장르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논쟁을 어느 정도까지 변용을 허용해야 하는가로 넘겨야 할 것이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필자는 에드워드 카(Edward H. Carr)의 역사적 사실 구분을 이용하고자 한다.

카는 역사적 사실을 세 개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 사실은 ‘과거의 사실(fact of the past)’이다. 이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 두 번째 사실은 ‘과거에 대한 사실(fact about the past)’로, 이는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경우 ‘과거의 사실’ 자체를 파악하기 보다는 ‘과거에 대한 사실’을 기반으로 ‘과거의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세 번째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 역사가가 역사를 씀으로써 성립하는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은 ‘과거에 대한 사실’ 가운데 역사가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선별해서 구성된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가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⁶⁾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의 역사적 상상력에 의해 정리되었기 때문에 역사가와 다른 관점에서 ‘과거에 대한 사실’을 새롭게 정리함으로써 재구성이 가능하다. 이는 문화적 상상력을 동원한 변용을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과거에 대한 사실’을 기반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사실’의 재구성은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파악된 ‘과거의 사실’을 다시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 사료를 기술한 사관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롭게 파악하고자 한다면 ‘과거에 대한 사실’ 역시 재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사실’은 과거에 일어났던 부동의 사실이며 재구성하거나 재해석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변형시키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즉, ‘역사적 사실’과 ‘과거에 대한 사실’은 기록자의 주관성이 담겨 있는 사실로써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과거의 사실’은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학적 변용을 허용할 수 없다. 그러나 세세한 ‘과거의 사실’을 모두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필자는 여기에 아담 샤프의 역사적 사실의 범주를 추가하고자 한다. 샤프는 『역사와 진실』이라는 저서에서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과정에 있어 중요성을 가지는 사실, 즉 역사에서 중요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⁷⁾ 정리하자면,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 중에 역사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에 대한 문학적 변용은 허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실제 역사 왜곡의 문제가 있었던 영화 ‘명량’과 드라마 ‘명성

4) 송근호, 「루카치의 역사소설론과 역사소설의 문제」, 『현대문학의 연구』5(한국문학연구학회, 1995), pp.26~29.

5) 김기봉, 「소통과 매체로 보는 사학사」, 『역사문화연구』40(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1), p.393.

6) 김기봉, 「역사적 사실과 ‘언어로의 전환」, 『호서사학』제28집(호서사학회, 2000), pp.196~197.

7) A. 샤프, 『역사와 진실』, 김택현 역, (청사, 1982), p.221.

황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III. 실제 사례

1. 영화 '명량'

영화 '명량'은 2014년 7월 30일에 개봉된 영화로 한국영화 사상 최단기간에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명량'에서 등장하는 배설 장군이다. 그는 영화 속에서 이순신 장군을 암살하려 시도했으며, 거북선을 불태운 다음 도망치다 안위의 화살에 맞고 사망하게 된다. 배설 장군의 후손들은 배설 장군에 대한 부정적 설정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며 영화제작 관계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하지만 이순신의 『난중일기』나 『선조실록』을 보면 그의 당시 평판이 좋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⁸⁾ 비록 배설 장군이 실제로 이순신 장군의 암살을 시도하거나 거북선을 불태웠던 사실은 없지만 '명량'에서 묘사된 그의 세부적 행동들은 역사적 과정에서 중요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다. 더욱이 '명량' 속의 배설 장군의 행동들은 그 당시 그의 평판이 좋지 않았던 '과거의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명량'에서 묘사된 배설의 행동들은 문학적 변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드라마 '명성황후'

드라마 '명성황후'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방영되었던 사극으로 시청률이 30%가 넘어가는 높은 인기를 얻은 작품이다.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가 먼저 시연되고 그 이후 방영되었지만 드라마가 더 큰 파급력을 몰고 왔기에 드라마 '명성황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명성황후'는 방영 당시부터 명성황후 미화가 과도해서 논란이 된 작품이다. 드라마 내에서 명성황후는 뇌물을 받고 그 자금을 애국과 개화를 위한 자금, 일제의 눈을 가리기 위한 위장과 같은 식으로 표현하며 명성황후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미화했다. 하지만 실제 명성황후는 국고를 탕진하고 흥선대원군 축출 이후 민씨 일족을 대거 등용하여 외척으로 권력을 편중시켜 세도정치를 다시 불러들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⁹⁾ 명성황후가 뇌물을 받은 것은 조선의 이권을 외세에 헐값에 팔아넘기며 받은 돈이며, 주로 민씨 일족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드라마 '명성황후'의 행위는 '과거의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명성황후의 그러한 행위는 당시 조선의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미화시키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 왜곡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드라마의 상당한 파급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명성황후에 대해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시각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더욱이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

8) 『난중일기』, 정유년 8월 30일 무자. 배설은 적이 많이 올 것을 근심하고 도망가려고 하여(하략). 『선조실록』, 배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나라를 저버린 역적으로서 혈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분노하며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그가 방형을 받을 적에는 여정이 모두 통과하게 여겼습니다. (중략) 배설은 임금을 저버리고 도주한 역적이다. (신원선, 「<명량>을 보는 세 가지 방식」, 『현대영화연구』19권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4), pp. 402~403.)

9) 고종과 명성황후는 원자가 태어나자 원자가 잘 되길 빈다는 명목으로 제사를 8동 강산에 두루 돌아다니며 지냈다. 이렇게 탕진하는 비용이 천금이나 되어 비용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다. (황현, 『매천야록』, 정동호 역 (일문서적, 2011), p.35.)

IV. 결론

지금까지 팩션의 정의와 역사적 사실 구분을 통해 팩션은 역사적 사실을 문학적 변용을 통해 나타낼 수밖에 없으며, 그 변용의 허용 한계는 과거에 일어났던 실제적이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실의 경우 역사 왜곡이라 판단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팩션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준만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수정을 허용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한다. 이 점에 대해 김상민은 네스토리언(Nestorian)¹⁰⁾을 언급한다. 팩션과 픽션의 모호함을 네스토리언에게 맡김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¹¹⁾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이 번역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 게시되는 것과 같은 역사의 대중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 '명량'에서 역사적 사실과 다른 장면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팩션으로 인한 대중들의 역사 인식 왜곡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팩션은 좀 더 자유롭게 역사적 사실을 문학적으로 변용하여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중들이 역사적 정보들에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것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팩션과 픽션의 구분은 팩션의 소비자들, 대중들에게 맡겨도 될 것이다.

10) 네스토리언(Nestorian)은 네티즌(netizen)과 히스토리언(Historian)의 합성어로 네티즌들이 역사적 지식에 쉽게 접근하고 얻음으로써 역사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1) 김상민, 「역사 in 영화-영화로 보는 역사: 팩션-역사의 대중화인가 역사인식의 왜곡인가(2)」, 『역사&문화』5(역사문화연구회, 2006), p.30.

참고문헌

단행본

- 황현. 『매천야록』. 정동호 역. 일문서적, 2011.
- A. 샤프. 『역사와 진실』. 김택현 역. 청사, 1982.

논문

- 권덕영. 「역사와 역사소설 그리고 사극 - 장보고와 '해신'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60. 한국역사연구회, 2006.
- 김기봉. 「소통과 매체로 보는 사학사」. 『역사문화연구』40.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1.
- 김기봉. 「역사적 사실과 '언어로의 전환」. 『호서사학』제28집. 호서사학회, 2000.
- 김상민. 「역사 in 영화-영화로 보는 역사: 팩션-역사의 대중화인가 역사인식의 왜곡인가(2)」. 『역사&문화』5. 역사문화연구회, 2006.
- 송근호. 「루카치의 역사소설론과 역사소설의 문제」. 『현대문학의 연구』5집. 한국문학연구학회, 1995.
- 신원선. 「<명량>을 보는 세 가지 방식」. 『현대영화연구』19권.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4.
- 이은애. 「역사드라마의 '징후적 독해': 거대담론과 작은 이야기의 공존 가능성으로서의 역사 드라마」. 『한국문예비평연구』제30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9.